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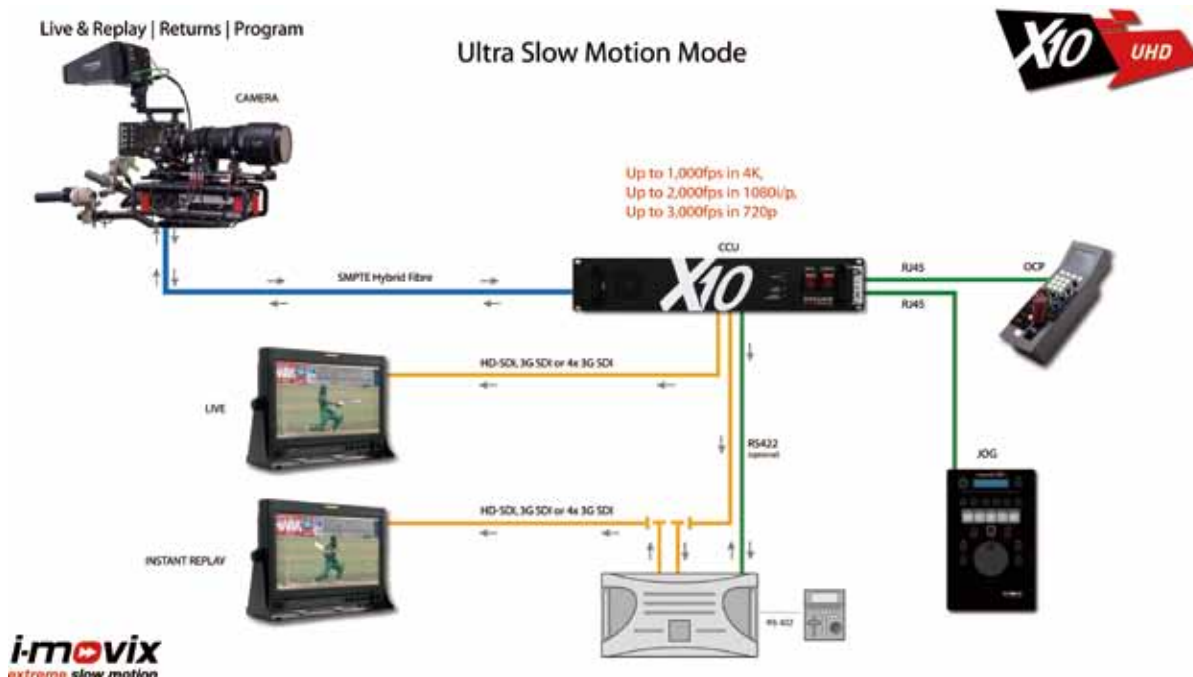
(주)디투에스

i-movix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연회 개최



요즘의 한국 방송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라면 단연 4K를 떠올릴 것이다. 주식회사 디투에스는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실제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식회사 디투에스가 선보인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은 벨기에의 i-movix X10 UHD로 i-movix의 CTO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업총괄 매니저도 시연회 기간을 끝까지 함께하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암동에 위치한 SBS를 시작으로 KBS, KBSn 스포츠, CJ 오쇼핑 그리고 IB 미디어넷에서 5일간 이어진 이번 시연회에서는 i-movix의 국내유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디투에스와 제조사인 i-movix의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의 상세소개와 함께 드림캐처(Dreamcatcher) 서버와의 연동 및 실제 운영까지 선보이며 시연회 기간 내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 구성

i-movix의 CTO인 David Bourgeois에 따르면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은 여타 4K 카메라들과 비교해 확연히 노이즈가 적은 팬텀 플렉스 4K(Phantom Flex 4K) 카메라 센서를 채택하고 있다. 거의 모든 스포츠 방송제작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모드(울트라 슬로우 모션 모드, 슈퍼 슬로우 모션 모드)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720p, 1080i/p, 4K 해상도를 사용자 편의대로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RF Wireless 카메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방송제작 환경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은 한국의 카메라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X10 UHD 4K 카메라 시스템은, 스포츠 방송 제작과 같이 굉장히 높은 fps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울트라 슬로우모션(USM) 모드를 이용해 최대 1,000fps로 즉각적인 리플레이가 가능하고, 끊김 없이 계속해서 녹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슈퍼 슬로우모션(SSM) 모드 4Kp60에서 최대 120f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돋보인다. HD 해상도 (1080p 혹은 1080i) 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슈퍼 슬로우모션(SSM) 모드를 이용해 최대 600fps로 사용할 수 있고, 울트라 슬로우모션(USM) 모드에서는 최대 2,000fps로도 사용해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자랑한다.

초고속 (Ultra Slow Motion, USM) 모드

- 카메라의 내장 메모리를 사용한 레코딩과 리플레이
- 내장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 레코딩 및 리플레이 시간 결정
- 가장 일반적인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 구성

초고속 모드 (USM 모드) [내장 메모리 : 64G]

		일반적인 케이스 (500 fps)	최대 프레임
4K	4096 × 2160	9.8초	4.9초 (1,000 fps)
HD	1080i 59/p59	39.2초	9.8초 (2,000 fps)

슈퍼슬로우 모션 (Super Slow Motion, SSM) 모드

- 카메라에서 촬영된 모든 이미지는 비디오 서버에 모두 저장
- 비디오 서버의 저장 용량에 따라 레코딩 및 리플레이 시간 결정
- 기존 LSM 워크플로우에 통합

슈퍼슬로우 모드 (SSM 모드)

		2배속	3배속	6배속	10배속
4K	2160p 59/60	120fps			
HD	1080i 59/p59		180fps	360fps	600fps

4K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모션블러(Motion Blur) 현상에 대한 i-movix의 대응을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i-movix의 영업총괄 매니저인 Benjamin Lardioit는 “해당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i-movix는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의 초기 개발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방송제작 현장에서의 베타테스트와 시스템 운영자들의 피드백을 끊임없이 시스템 개발에 반영한 결과 4K에서 모션블러 현상이 가장 적은 카메라로 이미 해외 방송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4K의 해상도는 HD와 비교해 이론적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fps로 촬영했을 경우에 모션블러 현상 또한 HD 해상도에서보다 4K 해상도에서 2배가량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4K 해상도의 이미지를 HD 해상도로 추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모션블러 현상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에는 시연회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특히 높았다.

i-movix는 EVS에 이어 Evertz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을 비롯한 i-movix가 보유한 솔루션들의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림캐처(Dreamcatcher) 서버와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을 연동시켜, 4K 해상도로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꺼내 HD 해상도의 이미지로 추출 및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방송제작현장의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선보인 X10 UHD 4K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은 한국의 기존 방송제작시스템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디지털 줌 [Digital Extraxtion from 4K to HD]



i-movix 4K UHD에서 촬영한 4K 화면



Dreamcathcer 서버에서 추출된 HD 화면

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i-movix 시스템의 안정적인 범 호환성과 방송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들의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앞으로도 주식회사 디투에스와 함께 더욱 앞선 방송 제작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한국 방송시장에 소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i-movix 4K X10 UHD



i-movix 4K X10 UHD RF

파나소닉코리아

“Panasonic, Be Ready for 4K”

전문가 수준 4K 캠코더 ‘HC-X1000’ 3월 출시 예정

“4K 60p 캠코더로 실제와 같은 생생한 영상 담는다”

파나소닉코리아는 고화질 4K 60p 비디오 레코딩이 가능한 캠코더 ‘HC-X1000’을 오는 3월 6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K 해상도의 기록이 가능한 HC-X1000은 4K 시대를 선도하는 파나소닉의 4K 시리즈 중 하나이다.

HC-X1000의 4K 60p/50p로 촬영한 4K 영상은 기존의 Full-HD 30p/25p로 촬영했던 영상에 비해 4배 정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선명함, 디테일을 유지할 수 있다. HC-X1000의 1/2.3" BSI 센서와 LSI를 장착한 Crystal Pro 4K 엔진은 4K 60/50fp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해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 시에도 고화질로 촬영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노이즈 감소 시스템은 어두운 곳의 노이즈를 최소화한 상태로 깨끗한 영상을 구현한다.

HC-X1000은 TV 방송을 위한 4K(Ultra HD) 3,840×2,160 해상도뿐만 아니라, 영화용 Cinema 4K 4,096×2,160를 지원해 영화 촬영 분야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



HC-X1000만의 듀얼 SD카드 슬롯을 장착은 저장 공간을 여유롭게 하고, 중요 장면을 놓치지 않는 안정성을 보유했다. 백그라운드 레코딩(Full-HD만 해당) 기능은 SD 슬롯1에는 REC 버튼으로 원하는 구간을 SD 슬롯2에는 지속적인 녹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동시레코딩(4K/Full-HD 해당) 기능은 2개의 SD 카드 슬롯에 동시에 녹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데이터 손실에 대한 걱정을 방지한다. 또, 오토 스위치 레코딩(4K/Full-HD 해당) 기능은 SD 슬롯 1의 메모리 카드 용량이 가득찼을 때 SD 슬롯 2에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여유롭게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HC-X1000의 3.5" 슬라이드 LCD는 터치가 가능하다. 1,152K-dot 모니터와 터치 방식을 통한 메뉴 설정이 가능한 다목적 LCD를 장비하고 있으며, 상단부 핸들 아래쪽으로 수납되는 방식을 통해 안전성과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27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 하이 앵글 및 셀프 인터뷰 촬영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멀티 다이얼 조작으로 포커스 영역의 최대 10대 확대가 가능해, 세밀한 초점 조정이 가능하다.

손떨림이나 호흡으로 발생하는 떨림 방지도 가능하다. 4K 대응을 위한 Power O.I.S는 초당 4,000번 이상의 손떨림 감지를 수행하는 자이로 센서를 통해 렌즈를 움직여 흔들림을 상쇄한다. 또, 줌 동작 중 촬영자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저속의 손떨림(저주파) 보정 능력은 4K 해상도에서 20배 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Full-HD 촬영에서만 가능한 5축 HYBRID O.I.S.+는 광각에서 초강력 망원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Wi-Fi 연결도 Panasonic Image App 사용으로 간편해졌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장치를 이용해 원격 조정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NFC와 QR코드 연결도 지원한다.

HC-X1000은 블랙 색상이며 3,780,000원이다. 한편, 파나소닉코리아는 HC-X1000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예약 구입을 하는 이에게는 소진 시까지 SD Card와 매프라도 가방을 증정할 예정이며, 문의는 02-533-8452로 하면 된다.

한양전자산업(주)

HAYACO

2.4GHz 디지털 IFB 시스템



HDT-240G 무선 IFB 송신기

2.4GHz IFB 시스템

IFB(Interrupted Fold Back) 시스템이란 진행자에게 PGM과 PD Call 등의 오디오와 소스를 유연하게 전송하기 위해 생겨난 시스템으로, HAYACO의 2.4GHz IFB 시스템은 기존 인터컴 시스템과 쉽게 연동 가능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채널의 자동 탐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내외 공인된 피코캐스트(PicoCast)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2.4GHz ISM 대역을 사용하여 송수신 간 전송지연이 적으며, 3중 보안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감청의 위험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보안이 우수한 장비이다. 다수의 방송관계자와 스텝들에게 기획자 또는 PD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나 제작에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사용자의 환경에 맞추어 편리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경량의 수신기는 휴대가 간편하여 촬영/제작 현장에 맞추어 사용자에게 편리한 활동성을 제공한다.

Specification

HDT-240G (무선 IFB 송신기)

HDT-240G는 B-CDMA 방식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음성 신호(Source)를 전달하며, 1RU의 송신기는 2개의 채널을 제공한다. 따라서 1대의 송신기로 독립된 2개의 스튜디오를 구성할 수 있다. 송신기는 최대 16채널(송신기 8대)까지 설정 가능하고, 소스의 손실 없는 전달과 뛰어난 감도를 제공하며, 3중 보안장치를 통해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 B-CDMA (PicoCast) 2.4GHz ISM 대역 디지털 방식
- 주파수 호핑 (Frequency Hopping) 기술
- 통신 보안을 위해 3중 보안 장치 (87 비트) 사용
- 최대 16개 채널 (언어) 동시통역 발언 지원
- 디지털 방식으로 혼선 없는 깨끗한 음성 제공

HDR-240G (무선 IFB 전용 수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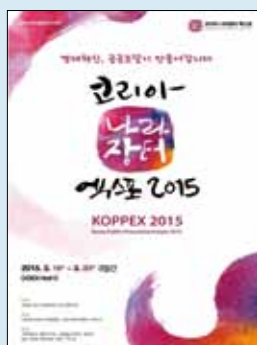
Frequency Band	B-CDMA 2.4 GHz ISM Band
Frequency Stability	±20ppm
Modulation	GFSK
RF Data Rate	1Mbps
RF Output Power	10mW
RF Impedance	50Ω
Rx Sensitivity	-84dB (0.1% BER)
SNR	79dB (A-Weighted)
THD	0.1%
Sampling Rate	24KHz Mono
Security Code	87bit Provided 3Way Encryption
Output Channel	2Channel
Audio Input Impedance	600Ω, Balanced
Input Audio Range	-20 ~ 0dB
Color	Black
Dimensions	484×204×45mm
Weight	2.2Kg
Power Requirements	AC 90V~132V, AC180V~264V, 50/60Hz(SMPS)
Power Consumption	15W
Operating Temp	-10 ~ +50℃

HDR-240G는 경량 IFB 수신기로 최대 16채널 중 원하는 채널의 오디오 소스를 선택하여 수신 가능하며, 앞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신호의 품질이나 레벨의 손실이 없는 뛰어난 오디오 신호를 제공한다. 일반 알카라인(AAA) 배터리를 기준으로 16시간의 운용이 가능하다.

Version	Retaw 1-05
Time	up to 16 hours
Frequency band	B-CDMA 2.4GHz ISM band
Modulation	GFSK
SNR	80dB (A-Weight)
THD	0.1%
Sampling rate	24kHz Mono
Dimension	95×58×16mm (L×W×H)
Power requirements	3.0V DC (AAA Battery×2)



HDR-240G 무선 IFB 수신기



또한 한양전자산업(주)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공공 조달 전시회인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한다.

한양전자산업(주)의 유/무선 회의 시스템, 마이크 장비, 가이드 장비 및 PA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와 음향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COEL CORPORATION

4K 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출발



코엘 코퍼레이션(주)(구 마인네트워크(주))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코엘은 지난 2월 10일 선유도역 아이에스비즈타워 801호에 새롭게 마련된 사옥에서 오픈 이벤트를 열어, 방송 영상 시장 및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앞장서기 위한 포부와 시설 등을 공개했다. 코엘을 방문한 방송장비업체 관계자 및 참석자들은 간단한 다과와 함께 코엘의 장비 현황과 시설, 사무실들을 둘러보며, 첫 출발을 축하했다.

오픈식에서는 4K, UHD 시장을 겨냥한 4K Showroom Platform이 마련되어, Virtual Studio, Control Room, Sound Design Room, Editing Room, Projection Room, Machine Room에 설치된 방송장비와 SW가 소개되었다. 세팅된 장비들로는 Hitachi의 4K 및 FHD 카메라, Ross Video의 스위처와 Furio 로봇틱스 카메라 시스템 및 제작 장비들, Tvlogic의 방송모니터, VLite의 LED 조명, Avid의 Protool과 블랙매직디자인의 다빈치 리졸브, Sony의 4K 프로젝터 등이 선보여 작지만 강력한 제작 스튜디오를 연상시켰다.

2000년 5월 창립한 구 마인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코엘 코퍼레이션(주)는 지난 15년간 국내 방송시장에서 최적의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며, 두터운 입지를 다졌고, 앞으로 4K 방송 시장을 향해 집중할 예정이다.

코엘이 서보일 주요 서비스로는 미디어 컨설팅과 방송 솔루션 제공을 바탕으로, SI(System Intergration)와 OB VAN 컨설팅, NL(Non Linear) HW, SW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등을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파트너사		PORTFOLIO
ROSS VIDEO	SONY	-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 국회방송 (참여)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참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참여) - JTBC 중계차 (참여) 2012 런던 올림픽 대회 (참여) - 광주방송 주조, 부조, 라디오, 중계차
TVLogic	IKEGAMI	
DotHILL	BlackMagicDesign	
HITACHI	AJA	
The Foundry	Mellanox	
AVID	SGO Mistika	
Quantel	Autodesk	

VIRTUAL STUDIO (가상스튜디오) - 4K 카메라(HITACHI) - Full HD카메라(HITACHI) - 로보틱스 카메라 시스템즈 Furio (Ross Video) - 모니터 (TVLogic) - LED 조명 (VLite) - 크로마키 그린 스튜디오	EDITING ROOM(편집실) - AVID - Final Cut Pro - DI(COLOR) · 다빈치 리졸브 · 더스트
SOUND DESIGN ROOM (녹음실) - AVID · Procontrol System · Protocol HD 8 · M-Box 2 - Steinberg UR 44 - Lucid AD-DA Converter - DBX 480 Driver Rack - Roland RD-700GX Keyboard - KRK, Auraton Monitoring Speakers	CONTROL ROOM (조종실) - Ross Video · Carbonite (스위처) · Acuity (스위처) · Xpression (문자발생기) · Blackstorm (서버) · NS series (라우터) · OpenGear (프레임) · OverDrive (부조자동화시스템) · GearLite (컨버터)
PROJECTION ROOM (시사실) - SONY 4K 프로젝터 - UHDTV	MACHINE ROOM (기계실) - 서버 - 허브 - 모니터(TVLogic)



2월 10일 열린 코엘 코퍼레이션의 오픈식 모습



가상 스튜디오에 설치된 Ross Video의 로보틱스 시스템과 Hitachi의 4K 카메라



Control Room에 설치된 Ross Video의 제작 장비들



Sound Design Room의 콘솔 장비



Editing Room의 색보정 장비들

캐논

2015년 상반기 전략 신제품 9종 발표



인사말 중인 강동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대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가 지난 2월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15년 상반기 신제품 및 전략을 발표했다.

캐논은 이번 발표에서 풀프레임 DSLR 카메라(▲EOS 5Ds/EOS 5DsR)와 프리미엄 엔트리 DSLR 카메라(▲EOS 750D), 미러리스 카메라(▲EOS M3), 콤팩트 카메라(▲파워샷 SX410 IS ▲IXUS 275 HS ▲IXUS 160), 신개념 이미지 저장솔루션(▲커넥트 스테이션 CS100), 최대 광각

줌렌즈(▲EF 11-24mm f/4L USM)까지 자사 전 카테고리에서 걸친 신제품 9종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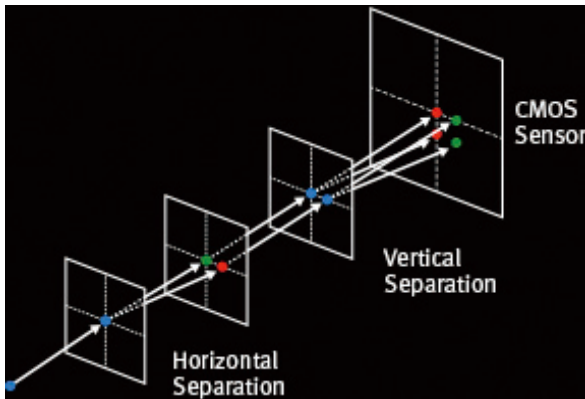
이로써 캐논은 사진 촬영은 물론, 출력과 이미지 저장, 대형 화면을 통한 감상, 공유까지 모든 사진 촬영 영역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며 카메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초고화소 DSLR 카메라로 표현 영역을 넓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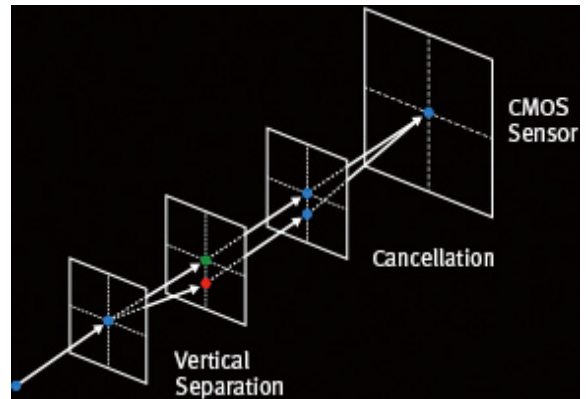
캐논은 초고화소 DSLR 카메라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촬영 영역을 더욱 넓혀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제품 전략을 반영한 첫 번째 DSLR 카메라가 고화소 풀프레임 DSLR 카메라 'EOS 5Ds'다. EOS 5Ds는 세계 최초 약 5,060만 화소의 35mm 풀 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스튜디오나 풍경 촬영에 압도적인 해상력을 발휘한다. 최대 해상도는 약 8688×5792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DSLR 카메라 중 가장 높은 해상도다. 이러한 고해상도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촬영한 사진을 100%로 확대했을 시 피사체의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어 A1 사이즈 또는 출판 인쇄용 대형 용지에 이미지를 출력해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는데 무리가 없다.

EOS 5Ds는 EOS 5D 시리즈 최초로 캐논의 영상처리엔진인 디지 6(DIGIC 6)을 2개 사용한 '듀얼 디지 6(Dual DIGIC 6)'을 탑재해 고화소 이미지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61개의 AF 포인트 또한 정밀한 포커스를 향상시켰고, EOS iTR AF & RGB IR 측광 센서를 통해 촬영 대상의 얼굴, 형태 및 색을 감지하여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전환한다.



EOS 5Ds



로우패스 필터가 제거된 EOS 5DsR



또한, 캐논은 광학식 로우패스필터 기능을 억제해 더 높은 해상력과 색 재현에 초점을 맞춘 형제 모델인 'EOS 5DsR'도 동시에 선보였다. EOS 5DsR은 고해상도로 인한 로우패스 필터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EOS 5Ds에서 위색과 모아레를 감소시키는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한 모델로, 더욱 선명한 세부 묘사를 통해 CMOS 센서의 최대 성능을 높였다는 평이다.

캐논의 EOS 5Ds와 EOS 5DsR은 기존 EOS 5D Mark III의 후속 제품이 아니라, 해상도와 화소 수를 중시하는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고화소 제품 라인업으로 EOS 시리즈의 사용자 선택의 폭을 다양화한 모델이다.

Feature	5Ds/5DsR	D810	5D Mark III
유효 화소수	50.6 MP	36.3 MP	22 MP
이미지 센서 형식	CMOS	CMOS	CMOS
이미지 센서 크기	36 × 24 mm	35.9 × 24 mm	36 × 24 mm
이미지 센서 타입	Full Frame	Full Frame	Full Frame
AA 필터	5Ds: Yes 5DsR: No	No	Yes
최대 기록 화소수	8688 × 5792	7360 × 4912	5760 × 3840
이미지 프로세서	Dual DIGIC 6	Expeed 4	Digic 5+
뷰파인더 타입	Optical (pentaprism)	Optical (tunnel)	Optical (pentaprism)
시야율	100%	100%	100%
배율	0.71x	0.7x	0.71x
기록 매체	SD/SDHC/SDXC, Compact Flash	SD/SDHC/SDXC, Compact Flash	SD/SDHC/SDXC, Compact Flash
영속 촬영 속도	5 FPS	5 FPS	6 FPS
셔터스피드	1/8000 to 30 sec	1/8000 to 30 sec	1/8000 to 30 sec
ISO 감도	ISO 100-6,400	ISO 64-12,800	ISO 100-25,600
최대 ISO 감도	ISO 12,800	ISO 32, ISO 51,200	ISO 50, ISO 102,400
오토 포커스 포인트	61 points	51 points	61 points
동영상	H.264	H.264, MPEG-4	H.264
영상 기록 크기와 프레임 레이트	1920 × 1080 (30, 25, 24 fps)	1920 × 1080 (60p, 50p, 30p, 25p, 24p)	1920 × 1080 (29.97, 25, 23.976 fps)
LCD 크기	3.2" Fixed TFT-LCD	3.2" Fixed TFT-LCD	3.2" Fixed TFT-LCD
LCD 해상도	1,040,000 dots	1,229,000 dots	1,040,000 dots
노출 보정	±5 (at 1/3 EV, 1/2 EV steps)	±5 (at 1/3 EV, 1/2 EV, 1 EV steps)	±5 EV (at 1/3 EV, 1/2 EV steps)
AE 노출	±3 (3 frames at 1/3 EV, 1/2 EV steps)	±5 (2, 3, 5, 7 frames at 1/3 EV, 2/3 EV, 1 EV steps)	±3 (2, 3, 5, 7 frames at 1/3 EV, 1/2 EV steps)
WB 노출	Yes	Yes	Yes
타임랩스 촬영	Yes	Yes	Optional
GPS	No	Optional	Optional
Wi-Fi	No	No	No
플래시 내장	No	Yes	No
배터리	LP-E6	EN-EL15	LP-E6
촬영 가능 매수	700 shots (CIPA)	1,200 shots (CIPA)	950 shots (CIPA)
USB 버전	3.0	3.0	2.0
크기	152 × 116 × 76 mm	146 × 123 × 82 mm	152 × 116 × 76 mm
무게	930g	880g	950g

5Ds/5DsR, D810, 5D Mark III 비교 / 참조 : <http://www.cameraegg.org>

동시에 선보인 'EF 11-24mm f/4L USM' 렌즈는 세계 최초로 11mm의 세계 최대 광각의 화각을 구현한 줌렌즈다. 지금까지 표현할 수 없었던 11mm의 초점거리로 풍경 촬영 시 더 광활하고 웅장하게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최대 광각 시, 수평 방향 화각은 약 117°, 대각선 방향 화각은 약 126°를 커버해 지금까지 찍히지 않았던 광범위를 한 화면에 담으며 보다 선명하고 강렬한 인상의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

사진 촬영부터 공유까지 사용자의 이미징 라이프에 초점

캐논은 사용자가 이미징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개념 이미지 저장 솔루션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을 선보였다. CS100을 통해 카메라 사용자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 후, 별도의 리더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촬영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다.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을 대형 HDTV 등에 연결시키면 카메라로 촬영한 고화질의 콘텐츠를 더 큰 화면에서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다.

또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1T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 하나의 기기에 사진과 동영상을 한 곳에 저장해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과 Wi-Fi 기술을 탑재해 간편하게 다른 기기로 파일 전송과 공유가 가능하다.

한편, 캐논은 이번 전략 발표회에서 디지털 광학 이미징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광학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Life-time Valued Partner'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제품적 특장점을 강조하는 기업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이미징 라이프'를 통해 어떻게 사용자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Connect Station CS100

(주)하이픽셀, 사무실 이전

Blackmagicdesign Master Distributor인 (주)하이픽셀이 2015년 3월 9일부터 기존 사무실에서 인덕원역 근방 평촌오비즈타워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쾌적하고 넓은 사무실에서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관양동 1802) 평촌 오비즈타워 1515호

전화

02-522-5591

홈페이지

www.hipixel.co.kr



오비즈타워 조감도